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심을 위한 예수님의 초대

(마 11:20-25)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의 초대의 내용은 쉽습니다.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면의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

1. 세상의 멍에

인생에 있는 모든 짐들, 가정의 짐들, 자녀의 짐들, 인생의 상처와 관계의 짐들, 일터의 짐들은 세상의 멍에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한 마디로 죄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혼자 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수고스럽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 주님의 멍에

소가 멍에를 매는 이유는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소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멍에를 맨 소는 주인이 잘 쓸 수 있도록 길들여 있습니다. 소가 멍에를 매지 않았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만 멍에를 매고 나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일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지 않고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은 죄악 된 세상에서 살아 가는 것 자체가 멍에요 짐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모든 멍에와 짐을 혼자서 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우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후에 예수님 안에서 참 쉬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게 단 번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따라간다면 점차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쉬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므로 주님 안에서 참 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Invitation for a Rest

(Matt. 11:20-25)

Though Jesus invites everyone, those who accept his invitation realize that they themselves really need God's help.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 11:28).

The content of Jesus invitation is to relax. It's a rest. The real rest starts when we meet Jesus respectfully in the inner part of our bodies.

Peter the Apostle encourages us to the following.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Pet. 5:7).

1. The yoke of the world

All the burdens of life, family, children, injury and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rkplace are the yokes of the world. The yokes of the world, in a word, are human sins. And yet, far too many people know that they carry the yoke of such heavy sins for themselves alone. That's why they live their weary and hard life.

2. The yoke of Jesus

The reason why cattle carry a yoke on them is to control them in order that the owner can make free use of them. Cattle wearing a yoke are tamed well in order that owner can control cattle. Though when cattle don't wear a yoke, they try to do their own way, after they wear a yoke, they give up their persistence, and obey their owner's command. So, the fact that we should wear the yoke of Jesus means that we ourselves give into Jesus for his usage. Those who wear a yoke and go together with Jesus look at all things of life with Jesus sight.

Moreover, we must learn Jesus' gentleness and modesty, in order to wear a yoke and go together with Jesus. We must put down our arguable rights, our mind, our honor, and pride. Jesus who was gentle and humble obeyed God until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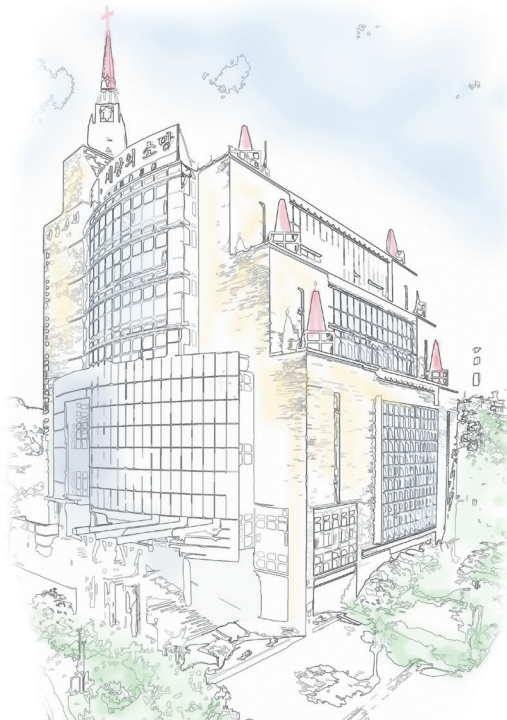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By living one's life, there is no one who is not weary and burdened. Really, living in the sinful world by itself is a yoke and burden.

Jesus invites us to go together with Him, by not taking all yoke and burden of life alone. In that the yoke that we take together with Jesus is easy and its burden is light, Jesus says that after we take a yoke with Jesus, we should enjoy a real rest in Jesus Christ.

Though the fact that we take the yoke of Jesus and learn gentleness and humbleness from Jesus cannot be made immediately, if we truly decide to take the yoke of Jesus and learn gentleness and humbleness and we follow Him, gradually, Jesus' peace and rest will fill our minds.

By taking Jesus yoke and bearing Jesus calling to the en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take a rest in Jes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5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상반기 열린프로그램

3월 3일(월) ~ 5월 11일(주일)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 35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상반기 열린프로그램이 개강한다. 기간은 3월 3일(월)부터 5월 11일(주일)까지 10주간이며 수강료는 과목당 10,000원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 과목 (10주)	예레미야서	월, 오전 10:00~11:00	조원영 목사
	야고보서	금, 오전 6:00~7:00	박영준 목사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602호
선교대학	월, 오후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료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20~4:30	배경애 전도사	903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40 ~ 3:00 (3월16-5월18일)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추후공지	서준권 목사	추후공지
수화교실 초급반 (16주) 중급반 (16주)	주일 오후 1:00~1:50 (2월 23일~6월 15일)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3월4일~5월13일)	박영준 목사 구본혜 전도사 양세라 전도사	802호
영,유아 어머니 하트스쿨	목 오전 10:30~12:30 (3월6일~5월 8일)	구본혜전도사	706호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8)

(문 118) 세스바살, 스알디엘, 스룹바벨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답) 역대상3:16-19에 의하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라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요시아의 셋째아들 시드기야와 동명이인입니다.

사로 잡혀간 여고냐(왕하24:8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낏살과 다른 세 아들이 있었고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미미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딸 하나와 다섯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20절)

스가라 시대에 유다 지역의 총독 스룹바벨은(숙 4:6-9) 브다야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3:2은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보아 스룹바벨은 그의 친부인 브다야가 일찍 죽고 스알디엘에게 양자 된 것이 분명합니다.(에스라3:8, 5:2, 느헤미야12:1, 학개1:1)

파사왕 고레스가 그의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 5,400개를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라는 말이 에스라1:8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스바살은 유다의 왕자로 그의 손으로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의 요구대로 옮겼다가 이번엔 그의 손으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게 된 것입니다.(11절) 후일 세스바살은 성전의 그릇뿐 아니라 고레스에 의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명령까지 받아 성전지대는 놓았으나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기까지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에스라5:14이하)

이 세스바살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합니다.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 또는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그러나 마1:12에 의하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3:27-31에서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스알디엘은 포로 후기에 산 자로 네리의 아들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포로기 말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를 이끌고 온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갈대아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김인호 장로

스데반회 2월 월례회 및 특강

일시: 2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 강사: 김인호 장로(명성교회)

스데반회는 2월 13일(목) 101호에서 스데반회 월례회를 가지면서 김인호 장로(명성교회)를 강사로 특강을 갖는다.

김인호 장로는 광주 고등검찰청 부장

아멘관현악단 단원 모집

주일 3부 예배 헌금송을 담당하는 아멘관현악단(대장 김혜언집사)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타악기로 자격은 전공자나 아마추어로는 5년 이상 연주 경험이 있는 세레교인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궁금한 것은 아멘관현악단(임범창집사 010-7227-3713, 김혜언집사 010-3923-9913)에게 문의하거나 주일 오후 3시 이후로 연습실(605호)로 방문하면 된다.

<기도와 관련된 용어>

기독교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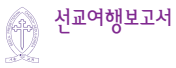
8. 성가대 -> 찬양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하는 찬양대를 최근에 '성가대'로 많이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출판사들이 흑인영가와 복음송을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 부르는데서 보편화되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세이카다이-성가대(聖歌隊)'가 그대로 직수입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가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우리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가대'라는 용어는 성경의 정신과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찬양대'로 바꾸어 부름이 타당하다.





팔라우에 주님의 위로가...

이준호 집사 (선교위원회)

이번 선교지 방문단 일행은 4박 5일간 팔라우 방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7일 새벽 코로로 공항에 내린 일행은 주지사가 마련해 준 모터보트를 타고 방문지인 가양겔 섬으로 향했습니다. 전날까지 날씨가 흐렸으나 당일에는 개어서 운항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목적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30여분이 지나자 짐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바닷물이 보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정장차림의 복장이 금세 물에 젖어 버렸습니다. 45도 각도의 파도를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수 십차례 반복하면서 당초 40분 거리라던 섬은 1시간이 되어도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높은 파도를 넘을 때마다 모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이 지나야 간신히 도착한 가양겔 섬은 지난해 근래에 보기 드문 강력한 하이엔태풍이 휩쓸어버려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가옥과 학교와 도로와 해변의 나무들까지 모조리 뽑히고 부서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섬을 둘러본 일행은 젖은 옷과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팔라우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인구 25,000명의 작은 나라. 태평양 전쟁 후 일본군의 점령에서 벗어나 미국령으로 있다가 1994년 독립한 팔라우 공화국은 340여개의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18,000명의 원주민과



소수인종으로 구성된 나라로 한국교민은 7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위주의 경제활동을 하고 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구제금과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튿날 일행은 현지인 교회인 펠렐류 에반젤리칼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섬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해군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미군과의 전투에서 수만 명이 전사하였고 한국인들도 이곳에 강제 징병되어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당시의 포탄과 탱크의 잔해가 그대로 있고 상륙작전 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해변가는 핏물이 바다를 이루었다고 하여 옐로우 비치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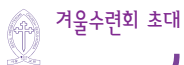
박노철 담임목사님은 에반젤리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녁때는 경찰선교회 간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국인 전사자 추모공원을 방문

하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세부 리트릿센터의 찰스 목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연료하신 목사님은 부인과 함께 성경을 팔라우 원주민어로 번역하고 원주민 목회자를 60여명 양성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곳에도 태풍으로 부서진 건물을 보수하도록 서울교회 구제금을 전하였습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큰 코로로 에반젤리칼교회를 방문한 때는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본래 주일예배만 드렸지만 이 날은 특별히 방문단 일행을 맞이 위해 수요일예배를 드리며 2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교지에 구제금을 전해줄 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신 서울교회 성도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방문 기간 동안 수고하신 정상진, 홍성임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겨울수련회 초대

사랑을 나누는 사랑부



이혜정 집사 (사랑부 교사)

서울교회 사랑부는 정신 지체 장애인 친구들이 많은 영혼으로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으로 서로 따뜻한 우애를 나눔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상인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뜨거움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월 16일 주일, 저희 사랑부의 겨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새로 부임하셨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던 듯

친근하신 박영준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 경배와 찬양, 게임 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날 말씀의 제목은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며, 이생의 자랑과 욕심으로 병들어가는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한 번 말씀의 은혜가 단비같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 따뜻한 사랑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겨울수련회 초대

변화하는 에바다

강낙훈 집사 (에바다부 부장)

농민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서 거듭나기를 위하여 에바다부의 겨울수련회를 2월15일(토)에 교회에서 일일 수련회로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임규현목사님의 예배인도 외에 특별히 안산제일교회 농아부 이영우 목사님의 특강을 더하여 매년 갖는 행사가 아니라 매일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을 에바다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5일 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에 임규현목사님의 인도하에 에바다부 성경공부 및 기도회가, 2월23일 부터는 청각장애 인과의 소통과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의 수화교실(초, 중, 고)도 농민 청년들의 지도로 열릴 예정이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에바다부에는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수화로 다시 듣는 에바다부 오후 예배는 은혜가 넘칩니다. 또 서울교회 성도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순례자의 내용을 발췌하여 임목사님께서 수화로 공지시키는 시간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서울교회 에바다부의 부흥이 계속되어 농민들에게 '천국시민 양성, 복음 전도, 주일 성수' 라는 에바다부의 목표가 실행되어 "잘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신앙강좌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도록



서은석 집사
(신앙강좌부 부장)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 확 무오한 말씀인 성경에 의지 하며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를 소망하지만 조그 만 유혹에도 믿음의 연수에 관계없이 쉽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힘써 행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확고히 내려 곧 사라질 인 간 세상의 무의미한 것에 열정을 쏟는 어 리석음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 601호에서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신앙강좌부 모임이 있습니다.

원종천 목사님(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장)께서 2012년부터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앙적 교훈』, 『고대와 중세교회를 걸쳐 복음의 진전과 핵

손』에 이어 올해는 교회역사에서 존재했던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될 수 있는 교리적이고 영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9기 설교사역도고부 교육 개강

오늘 부터 매일 한번씩 총 10회에 걸쳐 설교사역도고부 교육이 있게 된다. 현재 설교사역도고부 성도나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시간 : 매일 첫주일 오후 3:20~4:20(3월은 둘째주)
- 장소 : 506호
- 강사 : 박영준 목사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이갑진 남현주 강홍재 박정선1 송재현(선순례) 차영도(정미연) 신성균 전인상 신승균 김정숙8 윤윤걸 한나전도회 비비전도회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

황선희 원명희 스테반회 한나여전도회 배옥선 전인상 송재현 선순례 김성준 김선영 강홍래 박찬희 노병희 방덕자 인민희 신순자 배드로선교회 김재근 안분선 비비전도회 (다음 주 계속)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일(화) Save NK.이사회를 소집한다. 12일(수) 안동노회산하 30개교회 전교인(제직)수련회를 인도 한다. 14일(금) 새문안교회 권철수원회 개강특강을 한다.

■ 득남: 12교구 최지욱 집사 이정현 집사(최광성 장로 이정연 권사 장남 가정)

■ 주간식당봉사 : 호산나학교 학부모 이석선교회 리브가전도회(29) 빌립선교회 도르가전도회(2.16)

■ 금주의 식사 : 호산나학교 학부모 일동

세상을 바꾸는 맘(엄마들)

고등부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신약성경여행

일시: 2014년 2월 9일~3월23일(매주일 오후 2시 부터 1시간) / 장소: 504호

강사: 천세종목사(고등부 담당,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교수)

주제 : 복음서의 엄마들/여성들

- 1강 : 불편한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복음 10:38-42)
- 2강 : 12년만에 되찾은 행복: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5:21-34)
- 3강 : 개처럼 취급당해도: 귀신들린 딸을 가진 엄마 (마태복음 15:21-28)
- 4강 :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1-30)
- 5강 : 먼저 돌로치라: 성전 가운데 세워진 여인 (요한복음 8:1-11)
- 6강 : 머리털로 닦은 발에 입맞추며: 향유 붓는 여인 (누가복음 7:36-50)
- 7강 : 여종의 비전함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엄마 (누가복음 1:26-56)

2014년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2월 21일(금) ~23일(주일)	서울교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양세라 전도사
유년부			나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	김안성 목사
초등부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2월 20일(목) ~ 22일(토)	아가페타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노정호 목사
청년2부	2월 28일(금)~3월1일(토)	아가페타운	Ad Fontes (기본으로 돌아가라)	서준권 목사
신혼가정공동체	2월 22일(토)	서울교회	아름다운 연합	서준권 목사 나희수 목사
사랑부	2월 16일(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15일(토)	서울교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이영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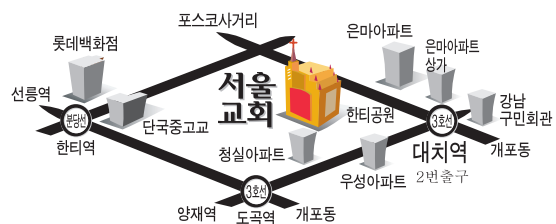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시 시작하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미안마 단기선교팀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고 돌아 오도록
3. 15일(토)에 있는 에바다부 겨울 수련회와 16일(주)에 있는 사랑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